

## 한국 수산자원의 관리방향

### 장 차 의

부경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 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해양의 어업자원은 현재 거의 모든 해역에서 60 - 90%가 이미 남획 또는 고갈되었으며 세계 총어획량은 1988년이래 1억톤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은 상당히 많은 어업자원이 남획과 환경악화로 인해서 고갈되었으며 어업생산성이 악화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수산물 수입자유화 권고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개방되어 수산물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EEZ제도에 의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이나 교섭으로 인해 전통적인 어업수역의 축소로 어업생산의 감소가 예견되는 등 전반적인 어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국제어업관리 방향을 모색해 보면서, 한반도 주변의 어업과 자원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산자원 관리대책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인정되어 해양법 협약에서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본격 시행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TAC) 어업관리 제도를 고찰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 연구현황과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